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6호 [투계 제2714호]

주제 111  
(2022)년 9월  
3일  
토요일  
음력 8월 8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잊을 수 없는 8월에 새겨진 진리

8월은 지나갔다.  
허나 공화국의 인민과 군인들의 뇌리에 8월은 지울 수 없는 뜻깊은 한달로 새겨져 있다.  
누구나 눈물로 말하고 눈물로 격정을 나누었으며 눈물속에 목청껏 만세를 부르지 않았던가.  
말과 글로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신의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그 고마움과 은덕을 노래할 수 없기에 인간감정의 가장 진실한 언어인 눈물로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는 자애로운 아버지께 감사의 끈을 삼가 드려왔다.  
한방울도 한방울...

그 수천만개의 눈물방울들이 비친 8월의 날과 날들은 세월이 간대도 영원히 간직할 강렬한 사랑과 크나큰 격정의 시간들이었다.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자애로운 아버지, 그의 사랑넘친 음성으로 딱 차있는 불멸의 8월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 나라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었다는 현실앞에 솔직히 심정은 착잡하였다. 그것은 나에게서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을 때조차 나를 다잡아주고 항상 떠밀어 일으켜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았다고 하시며 땅에 대한 진함없는 충심,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웃으며 헤쳐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오직 우리 당만을 바라보며 굳센기 공화국에 난 고마운 인민이라고 한없는 정을 담아 불러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이런분위기에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던 련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들을 소집하시고 하나에서부터 열, 백, 천, 만가지에 이르는 대책과 방도들을 직접 내놓으시어 명철한 방략들을 가르쳐주시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엄혹했던 91일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열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시지 못하고 무려 1772회에

운 임무를 완수한 인민군대 군의부대 전투원들은 평범한 자신들을 오늘의 화신군, 전투영웅들로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시며 대개같은 은정을 거둬 배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들 겨레의 눈물로 쓰고셨다.

미중유의 대동관속에서 운명적인 죽난을 한몸에 결머시고 비범한 예지와 초인간적인 정력, 탁월한 령도로 준엄한 방역전쟁을 대응으로 향도하시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만고불멸의 대업적을 이룩하시고도 그 모든 영예를 우리민들에게 쾌를 끼치지 않고 공식적인 환송의식도 없이 깊은 밤, 이른 새벽에 조용히 수도의 거리를 떠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최대비상방역전에서 혁명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도를 남김없이 파시한 군의부대 전투원들의 미풍을 억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위훈을 온 나라가 다 알게 하시던 크게 평가해주고 영광과 행복의 최결정에 내세워주시기 위해 또다시 특별명령을 내리시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며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충만된 추하연설을 하시었다.

또한 인민사수의 전방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운 전투원들이 앞으로 우리 인민이 마음놓고 무병무탈하게 사는 귀중한 보금자리,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가는 유능한 아전군, 아전명령의 훌륭한 자욱을 계속 새겨갈것을 바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복에 안으시고 기념사전을 찍으셨었다.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수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완수한 인민군대 군의부대 전투원들은 평범한 자신들을 오늘의 화신군, 전투영웅들로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시며 대개같은 은정을 거둬 배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들 겨레의 눈물로 쓰고셨다. 미중유의 대동관속에서 운명적인 죽난을 한몸에 결머시고 비범한 예지와 초인간적인 정력, 탁월한 령도로 준엄한 방역전쟁을 대응으로 향도하시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만고불멸의 대업적을 이룩하시고도 그 모든 영예를 우리민들에게 쾌를 끼치지 않고 공식적인 환송의식도 없이 깊은 밤, 이른 새벽에 조용히 수도의 거리를 떠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최대비상방역전에서 혁명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도를 남김없이 파시한 군의부대 전투원들의 미풍을 억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위훈을 온 나라가 다 알게 하시던 크게 평가해주고 영광과 행복의 최결정에 내세워주시기 위해 또다시 특별명령을 내리시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며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충만된 추하연설을 하시었다.

### 위대한 사랑이 안아올린 기적중의 기적

지난 8월 10일 공화국에서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을 세계 1만 2천여개의 언론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루스가 각일각 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민의 생각을 판가름하며 덮쳐오고있다.

우리 공화국에도 지난 5월 돌발적인 전염병확산으로 국가최대비상방역위기사태가 발생되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누가 가장 위대한 최전방에서 시어 인민을 지켜주시였는가.

그 이는 다음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그 어느 나라 지도자들도 막을 수 없었던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대재앙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쳐물리치고 공화국을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만드셨다.

이 기적의 근저에는 과연 무엇이 놓여있는가를 승리의 연단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들으며 누구나 알게 되었다.



### 조국소식

#### 강계시에 종합적인 약국이 새로 건설되었다

자강도에서 강계시에 종합적인 약국을 새로 일떠세웠다.  
도에서는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표준으로 될 약국을 시법적으로 꾸리고 모든 시, 군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작성과 임부분담을 명백히 한데 기초하여 공



###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

오늘 공화국은 후대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이 보장된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

공화국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로교육제도는 만고보아도 후대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학습과 실험 실습은 물론과 외활동, 탐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는 나라, 교과서와 참고서, 학습용품들을 저자 다름없는 매우 낮은 값으로 공급해주고 학생들의 교육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나라는 이 세상에 공화국밖에 없다.



본사기자